

# 韓國 古代 宮苑池의 展開樣相과 思想的 背景에 관한 研究

오 승 연 (경남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II. 宮苑池의 事例

III. 宮苑池의 分類

1. 平面形態 및 構成要素

2. 規格

3. 宮苑池의 用度

V. 宮苑池의 展開樣相

VI. 宮苑池 造營의 思想的 背景

VI.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 고대 궁원지에 대한 연구는 조경학의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 왔으나 고고학적 발굴을 직접 담당하는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단편적인 유적이거나 유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전반적이거나 종합적인 연구는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궁원지의 분류작업을 통해 한국 고대 궁원지의 계통관계를 파악하고, 궁원지 조영의 사상적 배경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한국의 고대 궁원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방지계(I)와 곡지계(II)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방지계(I)는 다시 섬·가산·정원석의 존재 여부에 따라 IA식과 IB식으로 세분되었다. 그리고 곡지계(II)는 호안이 곡선만으로 구성된 IIC식과 호안에 곡선과 직선이 함께 사용된 IID식으로 구분되었다. 또 규모에 따라서 최대직경 45m 이상의 대형(a)과 20m 미만의 소형(b)으로 구분되므로 결국 한국 고대 궁원지는 IAa·IAb·IBa·IICa·IICb·IIDa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궁원지가 처음 확인되는 초창기부터 방지계와 곡지계는 공존하고 있었으며 신라의 삼국통일 후, 궁원지의 계승 및 변화의 양상이 나타난다. 즉, 통일신라에서는 평면형태가 직선+곡선으로 이루어진 궁원지를 주로 받아 들이는 반면, 발해에서는 고구려계의 방형플랜을 가진 궁원지를 계승하는 점은 앞 시기로부터의 연속성이 엿보인다. 한편, 평면형태의 계승관계와 달리 구성요소 면에서는 삼국시대에 존재하지 않던 섬 상부의 정자터, 원지내 교각시설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양상은 이웃한 일본에서도 동시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7세기 후반~8세기 전반에 한·중·일 궁원지 조성에 새로운 변화의 동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궁원지 조영의 사상적 배경은 신선사상과 불교로 대별된다. 한국과 중국의 궁원지에 관한 기록이 모두 신선사상의 용어가 사용되는 점이나 한국 궁원지에서 섬·가산·정원석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기재가 나타나고 있는 점, 그것이 제외된 궁원지와 뚜렷히 구분된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섬·가산·정원석이 사용된 궁원지는 신선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섬·가산·정원석이 제외된 궁원지는 동시기 신선사상이 반영된 곡지계 궁원지와 형식상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점과 동시기 사원지와 형태·구조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불교적 색채가 짙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궁원지, 형식분류, 전개양상, 사상적 배경, 신선사상

## I. 머리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庭園이라고 하는 용어는 19세기 말 일본인 학자 橫井時冬의 저서 『園藝考』에서 처음 사용한 것에서 비롯한다<sup>1)</sup>. 이처럼 庭園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시작된 新造語이기 때문에 같은 한자 문화권의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의식적으로 일본식 용어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고, 韓國庭苑學會에서는 “국적불명의 표기를 쓰는 것 보다 역사적으로 보다 깊은 뜻이 담겨진 苑을 살려 庭苑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庭園 대신 庭苑의 사용을 주장하였다. 이를 감안해 본고에서는 정원을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로 ‘庭苑’을, 庭苑의 연못을 뜻하는 것으로 ‘苑池’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며, 宮苑池는 宮苑의 연못(池)이라는 뜻으로 표현코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원, 원지 등의 용어는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도 완전한 어휘 통일이 되지 않아,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적절한 용어가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苑池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佛國寺 九品蓮池, 慶州 月池<sup>2)</sup>, 平壤 安鶴宮苑池 등이 소개되면서 활기를 띠었다.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새로운 유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르러 慶州 龍江洞과 九黃洞에서 잇달아 대형 苑池 유적이 조사되면서 학계의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고고학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자료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재훈(1992)과 심봉근(1999)에 의해 한국 苑池 및 정원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가 이루어진 바 있다<sup>3)</sup>.

한편 조경학계에서는 우리나라 苑池의 원류를 찾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古代 苑池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1982년 韓國庭苑學會가 결성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sup>4)</sup>.

- 1) 정동오, 1986, 『한국의 정원』-한국원림연구-, 민음사, pp.21~22.
- 2) 고경희는 『三國史記』의 기록 및 雁鴨池 출토 在銘遺物을 통해 검토한 결과, 雁鴨池의 原名은 月池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주장하는 바, 본고에서는 ‘雁鴨池’ 대신 ‘月池’로 사용하였다.  
고경희, 1993, 『新羅 月池 出土 在銘遺物에 대한 銘文 研究』,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3) 정재훈, 1992, 『韓國傳統의 苑』, 조경사.  
심봉근, 1999, 「韓國의 苑池」, 『第16回檀原考古學研究所公開講演會』.
- 4) 박길룡, 1984, 「韓國庭園의 構成要素에 관한 研究」, 『한국정원학회지』 1(3).  
이송, 1984, 「韓國古代庭苑과 日本古代庭園과의 比較研究」 『한국정원학회지』 1(3).  
심우경·강훈, 1988, 「韓國 古代寺刹이 있어서 影池의 象徴的 意味와 修景의 位置」, 『한국정원학회지』 2(7).  
박경자, 2001, 『雁鴨池 造成計劃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영모·진상철, 2002, 「신선사상에 영향받은 전통 조경문화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41.  
백지성·하진호, 2002, 「경주시 용강동 정원유적의 원지구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41.

이 외에 文獻史적인 접근이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sup>5)</sup>.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 佛國寺 九品蓮池와 慶州 月池가 발굴된 이래 지금까지 苑池 자료는 상당히 축적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苑池 遺蹟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성과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韓國 古代 苑池를 그 입지별로 구분해 보면 宮, 山城, 寺刹, 民家 등으로 구분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宮苑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발굴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韓國 古代<sup>6)</sup> 宮苑池를 分類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른 各 形式間 系統關係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分類의 基準이 되는 宮苑池의 構成要素나 平面形態가 宮苑池 造營의 思想的 背景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 II. 宮苑池 事例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宮苑池는 平壤 安鶴宮에 3개소<sup>7)</sup>, 定陵寺 西便 苑池(眞珠池)<sup>8)</sup>,

5) 李基白, 1986, 「望海殿과 臨海殿」,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위 글에서 이기백은 문헌자료와 月池 발굴조사 자료를 근거로 신라 臨海殿이 백제의 望海亭으로부터 영향 받은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그의 주장에 본인도 동의하는 바이다.

6) 역사시대 중에서 우리나라 統一新羅時代 以前-일본 奈良時代 以前-중국 唐代까지를 以下 古代라 함.

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대성산성의 고구려 유적』.

보고서에는 “궁내에 여러개의 연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발굴 조사된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발굴결과를 토대로 하여 살펴볼 때, 연못의 형태는 대부분 방형이고 곡선형도 일부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8) 이 연못은 기존에 寺苑池로 알려진 것으로는 유일하게 내부에 4개소의 섬이 조성되어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섬가산정원석은 정원의 구성요소 중 神仙思想的 상징성이 가장 강한 요소들이다. 연못 내에서 ‘定陵寺’라고 하는 명문과가 출토되어 정릉사와 관련된 연못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寺苑池로서는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못의 전반적인 입지 및 형태를 관찰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寺苑池는 대체로 佛影을 투영하는 影池로서의 기능이 강하며 그 입지는 사찰의 주 출입구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심우경·강훈, 1988). 주 출입구에 배치되는 것은 속세와 극락정도의 사이에서 중생을 극락정도로 인도하는 과정에 정화수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寺苑池는 대체로 연못안에 蓮花化生을 상징하는 연꽃을 길렀다고 하여 蓮池라고 부른다. 이처럼 佛教의 성격이 강한 연못에 道敎의 상징성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수단인 섬이나 가산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다른 寺苑池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에서 ‘定陵寺’銘 기와가 출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연못을 정릉사에 편입시키는 것 또한 무리가 있는 것이다. 정릉사에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기와가 이 연못 주변 건물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으며 폐기 후 연못내부로 유입될 수도 있으므로 유동성이 강한 유물의 출토만으로는 유구의 성격을 단정짓기 힘든 것이다. 정릉사지 서편 연못은 우선 정릉사에서 서쪽으로 400m나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찰의 주 출입구라는 확신을 갖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 연못은 정릉사에 부속된 연못으로 보기는 어려운 듯 하다. 주변지역이 발굴되지 않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이 苑池의 성격은 당시 安鶴宮과는 별개인 離宮의 宮苑池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본래 정릉사는 高句麗가 평양으로 遷都하면서 始祖 東明王陵을 移葬해 오고, 그 願刹로서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王都를 遷都하는 과정에서 始祖墓를 함께 옮겨왔다는 것은, 후세의 왕이 계속해서 그곳을 찾고 참배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으므로 주변에는 정릉사 뿐만 아니라 始祖墓와 관련된 祠堂이나 離宮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新羅의 예를 들어 보면, 『三國史記』 照知麻立干立 九年 春二月에 始祖가 태어난 곳에 神宮을 만든 이후,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그 초기에 신궁에 가서 참배하였다는 기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高句麗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新羅의 神宮으로 추정되는 경주 나정에 대한 최근 발굴 결과, 직경이 22m에 이르는 新羅시대의 대형 8각 건물지가 확인된 바 있다. 앞으로 이 8각 건물지의 성격이 보다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金正基, 1991, 「高句麗 定陵寺址 및 土城里寺址 발굴보고 개요와 고찰」, 『佛敎美術』 10.

정재훈, 1992, 『韓國傳統의 苑』, 도서출판 조경사.

公州 公山城 圓形池<sup>9)</sup>, 扶餘 宮南池<sup>10)</sup>·官北里 蓮池<sup>11)</sup>, 慶州 月池<sup>12)</sup>·龍江洞 苑池<sup>13)</sup>·九黃洞 苑池<sup>14)</sup>·月城垓字<sup>15)</sup>·國立慶州博物館 境內 苑池<sup>16)</sup>, 渤海 上京龍泉府 宮苑池<sup>17)</sup> 등 10여개소이다. 유적의 조사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宮苑池 位置 및 立地

遺蹟	立地
安鶴宮 南宮	安鶴宮 南宮 西便 건물 南便
安鶴宮 東南隅	安鶴宮 東宮 南便(宮 東南隅)
眞珠池	定陵寺址 西便 400m 地點
公山城 圓形池	公山城 推定王宮址內(건물군 中庭에 해당)
宮南池	扶餘 宮城의 南便
官北里 蓮池	추정 扶餘 王宮址부근(주변에 건물군 있었을 것으로 추정)
九黃洞 六角形池	龍宮 北便(건물군 中庭으로 추정)
月池	월성의 북편(신라 동궁의 東便)
月城垓字	월성 성벽 북편(垓字 改造)
慶州博物館 境內	南宮의 中庭으로 추정됨
龍江洞 苑池	월성에서 정북으로 3km지점(추정 北園宮)
九黃洞 苑池	龍宮 北便
上京龍泉府 宮苑池	宮 東南隅

- 9) 공주사범대학박물관, 1987, 『公山城 百濟推定王宮址 發掘調査報告書』.
- 1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 『宮南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1, 『宮南池Ⅱ』.
- 11) 윤무병, 1985, 『扶餘官北里 百濟遺蹟發掘報告(Ⅰ)』, 충남대학교박물관.
- 12) 문화재관리국, 1978, 『雁鴨池』.
- 13)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慶州龍江洞苑池遺蹟』.
- 14) 九黃洞 苑池는 현재 서쪽이 분황사와 접해 있으며 발굴된 유구의 성격을 볼 때 분황사와의 연관성을 피하기 힘들다. 또한 苑池 내에서 ‘芬王’銘 토기가 출토되었고 대외에서는 석등의 대좌로 보이는 연화대좌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 苑池를 寺苑池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苑池의 구성요소상 특징이 모두 宮苑池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다른 모든 寺苑池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 ‘芬王’은 선덕여왕을 일컫는 말이며 분황사가 선덕여왕이 건립한 왕실 원찰의 성격을 가진 점, 三國史記에 분황사와 황룡사 사이(현재 九黃洞 苑池유적 바로 남쪽)에 존재했다고 전하는 ‘龍宮’에 관한 기사 등을 참고할 때, 본인은 이 苑池의 조영 목적을 宮苑池로 추정한다 바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6, 『경주 구황동 원지유적 지도위원회의 자료』.  
吳承燕, 2002, 『韓國 古代 宮苑池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15) 문화재연구소 고적발굴조사단, 1990, 『月城垓字Ⅰ』.  
보고자는 이 연못을 두고 ‘연못형 해자’라 명명하였으나 이미 해자 고유의 군사적 목적이 상실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이미 東宮이나 南宮의 조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宮城이 확장되면서 이곳도 宮城의 내부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석축 연못은 방어적인 ‘해자’의 기능보다는 ‘苑池’로서의 기능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칭에 있어서 재고의 여지는 있으나 일단 ‘月城垓字’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16) 鄭良謨, 姜友邦, 1974, 『新築 慶州博物館 新羅時代遺構 第一次調査』, 박물관신문43號(국립중앙박물관).  
———, 1975, 『新築 慶州博物館 新羅時代遺構 第二次調査』, 박물관신문45號(국립중앙박물관).
- 17)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Ⅰ)』,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표 2> 苑池 平面形態 및 規模

遺蹟		平面形態	規模(m)
고구려	安鶴宮 南宮 西便	부정형	동서 약 70·남북 약 35
	安鶴宮 東南隅	방형	동서 70·남북 70·최대깊이 2.4
	眞珠池	장방형?	남변 115·동변 75·깊이 2.4
백제	公山城 圓形池	원형	상부지름 7.3·깊이 3
	官北里 蓮池	장방형	동서 10·남북 6.2·깊이 1.2
신라	九黃洞 6角形池	6각형	對邊 680~710, 깊이 0.4
	月池	부정형	동서 약 173·남북 약 190, 깊이 3이상
	龍江洞 苑池	부정형	동(현) 37, 서(현) 66, 남(현) 37, 둘레(현) 140, 깊이 20~84
	九黃洞 苑池	부정형	동서·남북 46.3, 깊이 1.5
	月城垓字	부정형	동서 40·남북 52
	國立慶州博物館 境內	반월형	길이 15·최대너비 5·깊이 1.3~2
발해	上京龍泉府 宮苑池	장방형	동서 110·남북 190

<표 3> 宮苑池內 硯 個數

遺蹟	個數
安鶴宮 南宮 西便	4
眞珠池	4
宮南池	1(추정)
月池	3
龍江洞 苑池	現 2
九黃洞 苑池	2
上京龍泉府 宮苑池	2

<표 4> 宮苑池 假山

遺蹟	內容	
安鶴宮 南宮 西便	위치	연못 東便
	개수	1
月池	위치	연못 東·北便
	개수	多數(巫山十二峰)
上京 龍泉府	위치	연못 東·西便
	개수	2

<표 5> 宮苑池 바닥시설 現況

遺 蹟		內 容
고구려	安鶴宮 東南隅	점토+자갈 위에 점토
	眞珠池	자갈
백 제	公山城 圓形池	생토 위에 판석 부설
	官北里 蓮池	생토면
신 라	九黃洞 6角形池	20~40cm 천석부설. 각 모서리 앞에 천석 빈 공간 존재
	月池	점토+자갈+강회 다짐
	龍江洞 苑池	황갈색 점토 다짐
	九黃洞 苑池	남반부- 자갈+모래+강회(?) 북반부- 사력층(하상퇴적층)
	月城垓字	점토(토광형 해자 내부퇴적토)

<표 6> 宮苑池 入·出水施設 現況

遺 蹟	入 水		出 水	
	위치	구조	위치	구조
安鶴宮 東南隅	위치	북안 서편	위치	남안 서편
	구조	수로·폭포(추정)	구조	수로
眞珠池	위치	서북	위치	동남
	구조	수로	구조	수로
官北里 蓮池	위치	북	위치	남(추정)
	구조	수로(기와열)	구조	
九黃洞 6角形池	위치		위치	동
	구조		구조	석축배수로
月池	위치	동남	위치	북안 서편
	구조	수로·폭포	구조	수로(수위조절)
龍江洞 苑池	위치	동남	위치	북안 서편
	구조	수로·폭포	구조	
九黃洞 苑池	위치	동남	위치	서안 중위 돌출부, 북반부 바닥 전체
	구조	石築水路	구조	암거(잡류)+석축배수로
月城 垓字	위치	동남	위치	서북
	구조	수로·폭포	구조	수로
上京龍泉府 宮苑池	위치	북	위치	남
	구조		구조	

〈표 7〉 宮苑池 周邊 建物址 現況

遺蹟	內容
安鶴宮 南宮 西便	연못 북편. 장방형 건물터 및 정자터(上京龍泉府와 동일)
公山城 圓形池	연못 북·동편- 건물지 中庭에 해당
官北里 蓮池	연못 서쪽에 수혈주거지(연못과의 관련성 불확실)
九黃洞 6角形池	연못 주변(지면 삭평으로 결실)- 건물지 中庭에 해당
月池	서·남쪽에 추정 동궁지 서안 돌출부(5개소)에서 주로 조망
龍江洞 苑池	남측 섬 동편, 연못 동남편
九黃洞 苑池	서·남 측대 상부(月池와 동일). 지면 삭평으로 결실
月城核字	동·북쪽에 배치 가능
上京龍泉府 宮苑池	못 북쪽에 중심건물지, 섬 위에 정자터, 못 남편

〈표 8〉 宮苑池 庭苑石 現況

遺蹟	內容	
安鶴宮 南宮 西便	위치	연못 내외부
	종류	怪石(호온펠스로 추정)
	기법	미상
月池	위치	동·북 호안석축 상부, 섬 상부, 서안 측대 앞
	종류	호온펠스
	기법	입석, 산치, 군치, 특치, 첩치 혼용
龍江洞 苑池	위치	인공섬A의 호안석축
	종류	천석, 할석(화강암), 청석(호온펠스)
	기법	입석, 괴석의 列狀배치
九黃洞 苑池	위치	남반부 호안석축내, 남안 뒤쪽, 측대와 호안 사이
	종류	할석(화강암) 및 천석(호온펠스, 虹石, 紅石, 구갑석 등)
	기법	주로 입석, 산치, 군치 특치 혼용

〈표 9〉 宮苑池內 橋脚施設 現況

遺蹟	內容
龍江洞 苑池	인공섬A 돌출부 동편 연못 바닥(섬과 동안 사이)
九黃洞 苑池	소도 정상부 동편에 추정 교대지(섬과 동안 사이)
上京龍泉府 宮苑池	서쪽 섬 동편에서 교대 확인(섬과 섬 사이)



< 10> 新羅宮苑池 湖岸石築 比較

	月池	龍江河苑池	九黃河苑池
: 410m, 2 ( 65m), 3 ( 90m)	: ( + ) : 1.5m( ~ ) : 가	: + : 38.6m, : 40 ~ 84cm(2 ~ 4 ) : 가 : A 1	: + : 31m, : 1m( 5 ) : 1 : ( 苑牆 )
: 307m, 5	: m( ~ ) : 가	: + : 65m, : 20 ~ 60cm(1 ~ 3 ) : 1 : 가	: + : 43m, : 70cm( 3 ) : □□形 : 1 ( ) : ( )
: 79.5m, 2 : 1m	: 1m	: + : 33m, : 20 ~ 70cm(1 ~ 3 ) : ( 가 : 가 : 1	: : : 24.8m, : 1m( 7 ) : 3 , 2 : ( ) : ( 가
: 186m, 3 : 가	: + : 1.4m(12 ~ 14 ) : 가		: : : 24.5m, : 80cm( 4 ) : 2 : ( + )

< 11 > 宮苑池 比較

月 池	龍江洞 苑池	九黃洞 苑池	渤海 上京龍泉府
. : : : 139m, 1094㎡(330 ) : 1.7m(12 ~ 13 ) : 3.5m : : :	. : 1 : : : 100m, 126 : 80cm : ( . ) : 가 : + :	. : : : 70m, 301㎡( 91 ) : 1m : 1.7m : : : ' + :	. : : : : 30m : 2.7m : : 8
. : : : 111m, 596㎡(150 ) : 1.6m(12 ~ 13 ) : 5.5m : : :	. : 2 : : 1 : 3m, : 1 ~ 2 : :	. : : : 43m, 118㎡( 36 ) : 50m(1 ~ 3 ) : 1.2m : : ( ) : + :	. : : : : 30m : 2.7m : : 8

宮苑池 분류는 平面形態와 構成要素, 規模를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 1. 平面形態 및 構成要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정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연못의 평면형태를 기준으로 方(形)池와 曲池로 구분하고 있으며<sup>18)</sup>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개념은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에서는 방형 외에도 원형, 6각형, 타원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方池·曲池의 분류 개념이 얼마나 정확하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이 문제는 향후 신중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는 방형·원형·6각형·타원형 등 평면형태에서 대칭을 이루는 苑池의 성격이나 계통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일단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方池·曲池의 개념을 원용하여 方池系(I-원형·타원형 포함)와 曲池系(II)로 구분하였다.

方池系(I)는 평면형태가 방형, 원형, 타원형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일정한 대칭구조를 가지거나 그에 가까운 것을 지칭한다. 세부적으로는 섬, 가산, 정원석 등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것을 IA式이라 하고 이 요소들이 포함된 것을 IB式으로 분류하였다. IA식에는 安鶴宮 東南隅, 公山城 推定百濟王宮址內 圓形池, 扶餘 官北里 蓮池, 慶州 九黃洞 6角形池, 月城垓字 등이 있으며 IB식에는 眞珠池와 渤海 上京龍泉府 宮苑池가 속한다.

曲池系(II)란 安鶴宮 南宮 西便 苑池, 宮南池, 月池, 龍江洞 苑池, 九黃洞 苑池, 慶州博物館 境內 苑池와 같이 연못의 평면형태가 일정한 대칭을 이루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된 것을 지칭한다. 曲池系(II)에서는 方池系(I)에서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했던 섬·가산·정원석 등의 구성요소가 모든 경우에 사용되어 그다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曲池系에서 시간성을 더욱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는 호안석축의 평면형태이다<sup>19)</sup>. 평면

18) 相原嘉之 編, 2002, 『古代庭園の思想-神仙世界への憧憬』, 角川選書 339.

小野健吉 編, 2001, 『日本庭園用語辭典』.

19) 직선 호안부는 대부분 건물의 기반역할을 겸하고 있다.

형태는 方池系(I)와 曲池系(II)의 大分類에서도 적용되었으나 曲池系를 세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曲池系(II)는 호안이 곡선만으로 이루어진 것(IIc)과 곡선·직선이 함께 사용된 것(IId)으로 세분된다. IIc식에는 安鶴宮 南宮 西便 苑池와 西宮의 後苑池가 있으며<sup>20)</sup>, 國立慶州博物館境內의 苑池가 곡선형으로 추정된다<sup>21)</sup>. II d식에는 宮南池·月池·龍江洞 苑池·九黃洞 苑池 등이 속한다.

## 2. 規 模

宮苑池를 분류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한가지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規模이다. 宮苑池의 크기는 경제적·신분적 문제와 부합하므로 이는 곧 宮苑池의 용도 및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실시한 형태 및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방법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宮苑池 최대경을 기준으로 그래프화 한 것이 아래의 분포도와 도수분포표이다.

분포도는 지금까지 조사된 宮苑池의 크기를 단순 나열해 최소 7.2m~최대 190m에 이르는 것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도수분포표는 분포도에 나타난 宮苑池의 최대경을 10m 단위로 임의 구분해 그 분포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20m 이하가 4곳, 40m~70m 까지가 5곳, 110m 이상이 3곳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사이 구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상 유적수가 소수이지만 크기별 분포 상황을 보면 대체로 大, 中, 小 3개 군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中·대형 사이에서는 용도나 구성요소로 볼 때 명확한 구분이 불가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宮苑池는 일단 大形(a)과 小形(b)으로 나누어 보았다<sup>22)</sup>.

이것은 단순히 宮苑池의 규모만을 가지고 나타낸 것이므로 형태 및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안과 접목해 보면 좀더 세분된 분류안을 제시할 수 있다.

### I Aa식- 安鶴宮 東南隅 苑池, 月城核字<sup>23)</sup>

20) 주 6)의 내용을 참고로 하면 궁 내부에 方池와 曲池가 함께 존재 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曲池가 IIc식, II d식 중 어느 것인지의 확실한 언급이 없다. 다만 여기서는 안학궁 배치도에 나타난 형태를 참고로 IIc식으로 판단하였다.

21) 1970년대 초 경주박물관 주차장부지에서 확인된 ‘半月形池’는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월성과 비슷한 반월형’이라는 것으로 보아 일단 IIcB식으로 추정하였다.

22) 현재까지의 韓國 宮苑池 자료에서는 대·중·소형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苑池가 추가로 발굴된다면 이 분류가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23) 月城核字 중에서 나지구 ‘연못형 해자’는 평면형태가 직선과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II Da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호안이 축조된 양상을 보면 월성 사면과 접한 부분만 곡선이고 나머지는 모두 직선 호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래의 토광형 해자를 매몰하면서 方池를 축조하고자 하였으나 방형의 플랜을 고수하기 위해 宮城인 월성의 성벽을 절개할 수 없어 곡선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I Ab식- 公山城 圓形池와 官北里 蓮池, 九黃洞 6角形池

I Ba식- 眞珠池, 上京龍泉府 宮苑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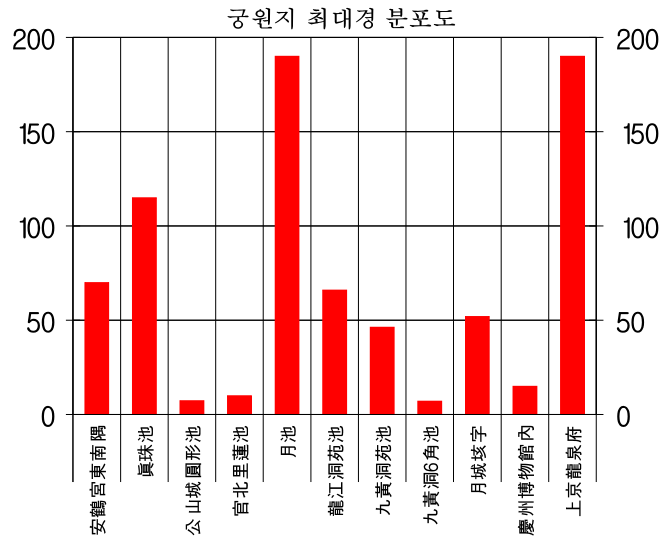
II Ca식- 安鶴宮 西宮 後苑池

II Cb식- 安鶴宮 南宮 西便 苑池, 國立慶州博物館內 宮苑池

II Da식- 宮南池<sup>24)</sup>, 月池, 九黃洞 苑池, 龍江洞 苑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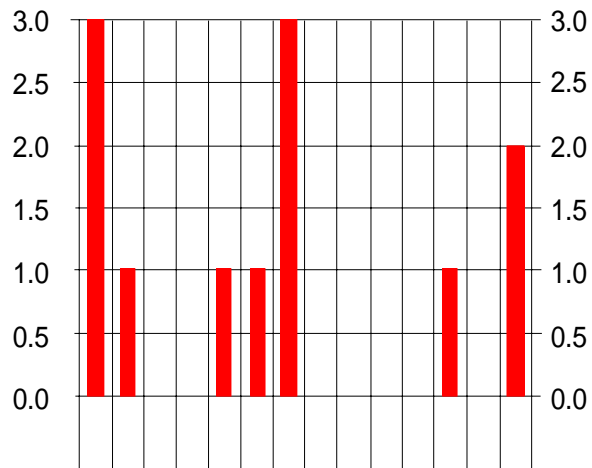
<표 12> 宮苑池 最大徑(m)

遺蹟名	最大徑
安鶴宮 南宮	70
安鶴宮 東南隅	70
眞珠池	115
公山城 圓形池	7.3
官北里 蓮池	10
月池	190
龍江洞 苑池	66
九黃洞 苑池	46.3
九黃洞 6角形池	7.1
月城塚字	52
慶州博物館內	15
上京龍泉府	190



<표 13> 宮苑池 最大徑  
度數分布表

크기(m)	頻度數
10以下	3
20	1
30	0
40	0
50	1
60	1
70	3
80	0
90	0
100	0
110	0
120	1
130	0
150以上	2



24) 宮南池는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규격을 알 수 없으나 일단 II Da식 宮苑池에 포함하였다. 宮南池의 형태나 구조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V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결국 이러한 분류에서 보면 IBb식 宮苑池(方池系면서 섬·가산·정원석 등의 구성요소가 있으며 소형인 것)와 IIDb식 宮苑池(曲池系면서 호안이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형인 것)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 두 형식의 宮苑池가 확인되지 않았는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는 단계이다. 원래부터 이 두 종류의 宮苑池가 존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아직 발굴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는 것인지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분류된 韓國 古代 宮苑池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 三國統一新羅의 宮苑池 分類

時代 形式	三國時代			統一新羅時代	
	高句麗	百濟	新羅	渤海	統一新羅
IAa	安鶴宮 東南隅	—————	—————	—————→	月城塚字
IAb		公山城 圓形池· 官北里 蓮池	九黃洞 6角形池		
IBa	眞珠池	—————	—————→	上京龍泉府 宮苑池	
IBb					
IIcA	安鶴宮 南宮 西便 苑池				
IIcB	安鶴宮 西宮 後苑池	—————	—————	—————→	國立慶州博物館 內 宮苑池
IIdA		宮南池—————	—————	—————→	月池, 龍江洞 苑池, 九黃洞 苑池,
IIdB					

### 3. 宮苑池의 用度

이상과 같은 분류안을 기준으로 각 형식별 용도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IAa식에 속하는 安鶴宮 東南隅 宮苑池와 月城塚字는 모두 그 용도가 복합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安鶴宮 東南隅에 위치한 方池는 규모가 대형이긴 하나 규모에 비해 경관 꾸밈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정원용 시설겸 주변 지하수위를 조절하는 실용적 목적

을 동시에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IAb식에 속하는 公山城 圓形池와 官北里 蓮池·九黃洞 6角形池는 규모가 작고 건물의 中庭에 해당하는 입지를 가지므로 건물에 부속된 듯한 경향이 강하다.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례나 향연의 보조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25)</sup>.

IBa식, IICa식, IIDa식에 속하는 眞珠池, 上京龍泉府 宮苑池, 安鶴宮 南宮 西便 苑池, 宮南池, 月池, 九黃洞 苑池, 龍江洞 苑池 모두 그 기본적 용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모두 섬·가산·정원석을 포함하는 대형 宮苑池이기 때문에 연못에 배를 띄우고 주변 건물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여흥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을 거닐며 한적하게 휴식을 취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IICb식 宮苑池는 IBa·IICa·IIDa과 입지나 구성요소에서는 동일하지만 규모가 작은 것들이다. 따라서 연못 내에 배를 띄울 수 없을 정도로 작아서 IICa식, IIDa식 宮苑池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 V 宮苑池 展開樣相

앞에서 살펴본 宮苑池의 形式分類를 토대로 展開樣相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14에서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宮苑池의 변화상을 통해 그 繼承·發展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IAa식은 고구려의 安鶴宮 東南隅 苑池와 통일신라의 月城垓字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그 축조 연대가 최소 100여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만 복합적 축조 의도<sup>26)</sup>라든지 평면형태, 호안석축의 축조 상태 등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일한 형식으로 분류되었다. 최소 100여 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을 매울 수 있는 백제 혹은 고신라에서도 조성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 安鶴宮이 平壤城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구려~통일신라 간 직접적인 영향의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여하튼 IAa식 宮苑池에서는 고구려 宮苑池가 통일신라 宮苑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25) 相原嘉之, 앞논문, pp. 84~88. 일본의 相原嘉之는 方形池를 ABC로 나누고 그 중 A類가 건물의 中庭에 해당한다고 하며, 연못은 건물에 부속된 것이고 연못 주변에서 의례와 향연이 행해진 것으로 보았다. 또한 方形池 C類(호안이 상부로 가면서 들어쌓기 되었고 수심도 깊은 편에 속하는 것)는 사상적으로 佛敎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았다.

26) 정원겸 수위조절용.

I Ab식 宮苑池는 백제의 公山城 圓形池, 官北里 蓮池, 九黃洞 6角形池가 있다.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에서 확인되었으나 고구려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I Ba식 宮苑池는 신라나 백제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고구려와 발해에서만 나타나는 宮苑池의 형태이다. 方池系 중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은 편에 속하며 입지, 평면형태, 연못내부에 섬의 조성, 토축호안 등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발해 苑池의 계승관계를 보여주는 일례가 된다.

II Ca식 宮苑池는 安鶴宮 南宮 西便 苑池와 九黃洞 苑池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II Cb식 宮苑池는 도면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安鶴宮 西宮의 苑池와 國立慶州博物館 境內의 半月形池가 있다. 고구려에서는 II Ca식과 II Cb식이 공존하고 있었으나 통일신라에 와서 II Ca식 宮苑池는 조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II Da식 宮苑池는 백제의 宮南池와 통일신라의 月池, 龍江洞 苑池가 있다. 方池와 曲池의 평면플랜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라 할 수 있는데, 고구려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백제 궁남지 또는 통일신라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신라에서 집중적인 조성이 이루어져 宮苑池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 경우 직선상의 호안은 모두 건물의 기단 역할을 겸하고 있다. 6~7세기 일본의 중심이었던 飛鳥地域에서도 같은 형식의 宮苑池가 확인된 바 있어 백제와의 관계를 짐작케 하고 있다.

여기서 宮南池의 형태를 주변국의 苑池를 통해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도 밝힌 바 있지만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宮南池’는 발굴을 통하여 백제 무왕이 건설했다는 宮苑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무왕의 宮南池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인가.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三國史記』의 기록과 주변국의 苑池를 통해 그 형태는 추정할 수 있다. 무왕 35년(634) “궁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리나 되는 곳에서 물을 끌어 들였으며 四岸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 가운데 方丈仙山을 모방한 섬을 조성하였다”고 하였으며, 同王 39년(638)에는 “왕과 왕비가 큰 연못에 배를 띄웠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두 기록에 나오는 연못이 반드시 같은 연못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대형 연못에 대한 기록이 4년 차이로 연속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연못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sup>27)</sup>.

이 못의 형태는 “四岸”이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方池로 볼 수도 있으며 굴곡형의 曲池로 볼 수도 있다. 전자는 ‘四岸’이 곧 연못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方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며, 후자의 경우 ‘四岸’을 형태에 대

27)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1, 『宮南池 II』.



한 표현이 아닌 ‘四方 周圍’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필자는 여기서 후자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의 苑池는 대부분 方池系인 점과 고구려와 발해에 方池系 宮苑池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자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구려 安鶴宮 南宮 西便 苑池와 신라의 月池, 일본 飛鳥의 苑池遺蹟의 비교를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신라 月池는 그 축조연대가 宮南池와 불과 40여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삼국 통일 직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아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sup>28)</sup>. 月池나 宮南池가 遊休池로서의 宮苑池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宮南池의 望海亭을 본떠 月池에 臨海殿을 조성한 것이라든지 池中에 섬을 조성한 사실 등도 공통점이다. 또한 무왕이 ‘큰 연못에 배를 띄웠다’고 했는데, 月池에서 木船 2척이 출토된 것 역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구려나 일본에 方池系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며 曲池系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安鶴宮 南宮 西便 苑池를 들 수 있는데 이 연못도 曲池에 섬과 假山을 가지고 있다. 이 苑池는 安鶴宮내 여러 정원터 중에서 대표적인 遊休池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제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飛鳥時代 苑池 중에서도 方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의 발굴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sup>29)</sup>. 이 苑池는 지금까지 확인된 어떠한 飛鳥時代 苑池보다도 宮苑池로서의 성격이 뚜렷한데, 직선과 곡선을 겸비한 석축호안 내에 積石하여 만든 中島를 가지고 있는 IIa식이다<sup>30)</sup>. 이 苑池의 조성 연대는 대략 7세기 중반경으로<sup>31)</sup> 7세기 후반 경에 축조된 月池보다는 선행하고 7세기 전반경의 宮南池 보다는 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飛鳥時代 苑池의 석축기법이나 방형 플랜이 백제의 강한 영향 아래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지금까지 백제 지역에서 曲池系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여도 飛鳥京 苑池遺蹟의 기원은 기록상에 나타나는 백제 宮南池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백제의 宮南池는 安鶴宮 南宮 西便 苑池, 月池, 飛鳥京 苑池遺蹟 등과

28) 삼국통일의 결과 많은 고구려-백제의 유민들이 신라로 유입되었는데, 그 중에는 宮南池와 같은 宮苑池를 조성하였던 정원기술자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신라에서 통일이전에는 건설하지 못하였던 대규모의 宮苑池를 조성하는데 있어 이들 이주민 기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사실 정원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양상이 그 이전에 비해 급격히 변화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통일이전부터 성숙되어 가던 신라 내부의 역량과 당문화의 직접적인 수입, 그리고 이미 중국 여러 왕조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선진문물을 접하고 있었던 고구려-백제 장인집단의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기백, 앞의 책.

29) 河上邦彦, 1999, 『發掘された飛鳥の苑池』, 第16回橿原考古學研究所公開講演會.

30) 일본 苑池의 호안은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다. 한가지는 석축호안이며 다른 한가지는 洲浜호안이다. 석축호안은 飛鳥時代 苑池에서만 확인된다. 石神遺蹟, 群山遺蹟 등에서 보이는 연못의 형태 및 호안축조기법은 扶餘 官北里蓮池, 定林寺址 蓮池와 흡사하다. 洲浜호안은 자갈돌 해안을 借景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법이다. 고분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城之越遺蹟에서부터 처음 나타나지만 이후 공백기를 거쳐 나라시대(8세기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이후 19세기까지 거의 모든 일본 苑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31) 橿原考古學研究所, 앞의 책, p. 4.

같이 曲池系의 큰 흐름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중에서 신라의 月池나 일본의 飛鳥京 苑池遺跡에 영향을 끼친, II Da식 宮苑池일 가능성이 크다.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宮苑池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5~6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sup>32)</sup> 그 초창기부터 I식과 II식은 공존하고 있었다. 이후 신라의 통일과 발해의 건국으로 인해 韓國 古代 宮苑池는 두 갈래의 흐름을 갖게 되었다.

즉, 백제계의 II Da식 宮苑池는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끼쳐 통일신라 宮苑池의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발해에서는 고구려 宮苑池와의 직접적인 계승관계를 짐작케 하는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北古南低形의 입지 및 입수→출수의 방향이 북→남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둘째, 苑池에서의 중심 건물이 연못 북쪽에 배치되며 그 형태나 구조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셋째, 苑池의 평면형태가 I Ba식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통일신라와 다른 ‘발해 건축문화의 전통’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궁성의 조성문제와도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sup>33)</sup>.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미 백제에서 조성되었던 II Da식 苑池를 포용력있게 받아들여 발전시킨 반면, 발해에서는 고구려 苑池의 중요한 패턴 중 하나였던 I식 苑池의 틀을 그대로 이어 받아 宮苑池로 조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섬의 상부에 정자를 세우고 섬과 섬, 섬과 호안사이에 다리를 설치한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새로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발해의 宮苑池가 단순히 고구려 宮苑池를 답습한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증거이다<sup>34)</sup>. 이러한 고구려와 발해 宮苑池의 양상은 비단 造苑技術에 한정된 것만은 아닌 듯 하며 궁궐 건축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5)</sup>

32) 安鶴宮 宮苑池가 궁 건립과 동시에 조성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므로 아직 단언할 수 없다.

33)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I)』,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34) 이 시기의 일본에서도 같은 양상이다. 平城宮 東院庭園의 경우, 전기 정원에서 존재하지 않던 교각시설이 후기 정원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7세기 후반~8세기에 이르러 한,일 苑池의 조성에 새로운 모티브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98, 『發掘庭園資料』.

35) 리화선, 앞의 책, 1989.

宮苑池를 조영하는 데에는 儒佛仙 외에도 隱逸思想, 陰陽五行思想 등 매우 다양한 思想的 背景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같은 대상을 놓고도 각각의 사상에서 서로 다른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원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내포된 상징성 또는 사상적 측면을 단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宮苑池의 조영은 분명한 사상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宮苑池의 섬·가산·정원석이라고 하는 구성요소의 존재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섬·가산·정원석이 조성된 宮苑池(安鶴宮 南宮·西宮, 眞珠池, 宮南池, 國立慶州博物館 境內, 月池, 龍江洞 苑池, 九黃洞 苑池, 上京龍泉府 宮苑池)는 神仙思想을 바탕으로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한국 고대 苑池의 思想的 背景을 道教 또는 神仙思想에서 찾고 있으며, 한국 宮苑池의 원류를 중국 고대 宮苑池에서 구하고 있다.<sup>36)</sup>

宮苑池의 思想的 背景이 神仙思想에 있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도성제의 기원은 중국이며, 宮·宮城·宮苑池 등의 배치는 중국의 사상, 즉 『周禮』, 『考工記』의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다<sup>37)</sup>. 둘째, 宮苑池에 대한 기록이 모두 神仙思想의 용어로 일관되고 있다는 점이다<sup>38)</sup>. 셋째 神仙思想의 표현 매개물로서 宮苑池 내에 섬·가산·정원석 등의 구성요소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이다<sup>39)</sup>. 따라서 섬·가산·정원석 등의 구성요소는 宮苑池에 내포된 神仙思想의 표현기재로 사용된 중요한 매개물임을 알 수 있다.<sup>40)</sup>

36) 道教와 神仙思想의 기원과 의미에 관해서는 김영모·진상철(2002)와 박경자(2001)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道教는 늦어도 중국 전국시대부터 전해져 왔던 神仙思想이 종교적으로 교리화 되면서 나타난 것이므로 중국 및 한국 宮苑池에 내재된 사상적 기반은 神仙思想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김영모·진상철, 2002, 앞논문.

박경자, 2001, 앞논문.

민정현, 1991, 앞의 책.

정재훈, 1992, 앞의 책.

37) 중국 도성제는 『周禮』, 『考工記』에서 형식적 틀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의 도성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우성훈의 견해는 본인도 동의하는 바이다.

우성훈, 1996, 「신라 왕경 경주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예를 들어 중국 진·한·당대의 궁원 기사와 백제 진사왕무왕대의 기록, 신라 月池에 관한 기록 등이 있다.

39) 물론 섬을 佛敎의 수미산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기록상에 전혀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적어도 통일신라 이전에는 寺苑池에 섬이 조성된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40) 필자의 석사논문(2002)에서는 宮苑池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이 佛敎 일색이며 당시 사회 전반에 걸친 佛敎文化의 隆盛 등을 이유로, 섬·가산·정원석을 조성한 宮苑池의 思想的 背景에 神仙思想과 佛敎가 모두 내포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양상이 宮苑池 자체의 사상적 기반을 변질시켰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하다. 宮苑池의 사상적 기반은 神仙思想에 있으나 당시 정치·사회적 지배이데올로기였던 佛敎文化와 겹쳐지면서 사찰에 苑池 등이 나타나는 양상으로 파악코자 한다. 다시 말해 宮苑池는 신라 왕정에 포함된 것으로, 바둑판식 도성제가 유행하던 시대의 문화가 佛敎文化 일색이고 유물의 다수가 불교와 관련된 것이라 해서 신라 왕정의 도시계획 자체가 佛敎的 상징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섬·가산·정원석이 제외된 宮苑池(安鶴宮 東南隅, 公山城 圓形池, 官北里 蓮池, 九黃洞 6角形池, 月城垓字)는 사상적 기반을 佛敎에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神仙思想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 조형물인 섬·가산·정원석이 寺苑池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IA式 宮苑池와 寺苑池가 형태나 구조상 동일하다는 점<sup>41)</sup>. 셋째, 6~7세기대 정원문화에 있어 백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일본에서도 方池가 佛敎와 함께 백제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sup>42)</sup> 등이다. 또한 寺苑池는 곧 蓮池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扶餘 官北里 蓮池에서는 苑池 사용 당시의 연꽃 유체가 확인된 점도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고대 宮苑池의 사상적 기반은 섬·가산·정원석의 존재 여부에 따라 神仙思想과 佛敎 두가지 흐름으로 파악될 수 있다.

## Ⅶ 맺음말

지금까지 韓國의 古代 宮苑池를 분류하고 그 展開樣相 및 사상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 본고의 한계성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삼국~통일신라시대 한국의 宮苑池는 평면형태에 따라 方池系(I)와 曲池系(II)로 구분된다. 方池系는 그 구성요소의 차이(섬·가산·정원석의 有-B, 無-A)에 따라 다시 세분되고, 曲池系는 평면형태가 곡선만으로 이루어진 것(C)과 곡선과 직선이 함께 사용된 것(D)으로 구분할 수 있다. 方池系와 曲池系 宮苑池는 모두 규모에 따라서 최대경 40m 이상의 대형(a)과 최대경이 20m미만의 소형(b)으로 나누어진다.

정리해 보면, 韓國 古代 宮苑池는 IAa式(安鶴宮 東南隅 苑池, 月城垓字), IAb式(公山城 圓形池와 官北里 蓮池, 九黃洞 6角形池), IBa式(眞珠池, 上京龍泉府 宮苑池), IICa式(安鶴宮 西宮 後苑池), IICb式(安鶴宮 南宮 西便 苑池, 國立慶州博物館內 宮苑池), IIDa式(宮南池, 月池, 九黃洞 苑池, 龍江洞 苑池)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용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安鶴宮 東南隅 宮苑池와 月城垓字의 경우

41) 불국사, 정림사 등에서 소형 方池系 苑池가 실제로 寺苑池로 채택되고 있다.

42)金子裕之 編, 2002, 『古代庭園の思想-神仙世界への憧憬』, 角川選書 339.

小野健吉 編, 2001, 앞의 책.

용수의 조절과 같은 실용적 목적이 강하다. 公山城 圓形池와 官北里 蓮池·九黃洞 6角形池는 규모가 작고 건물의 中庭에 해당하는 입지로, 건물에 부속된 듯한 경향이 강하며 의례나 향연의 보조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眞珠池, 上京龍泉府 宮苑池, 安鶴宮 南宮, 宮南池, 月池, 龍江洞 苑池, 九黃洞 苑池는 遊休池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宮苑池가 처음 확인되는 초창기부터 方池系와 曲池系는 공존하고 있었으며 삼국통일 이후 통일신라에서는 호안이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宮苑池를, 발해에서는 고구려계의 방형플랜을 가진 宮苑池를 계승하게 된다. 평면형태의 계승관계와 달리 구성요소 면에서는 통일신라시대에 앞선 시기에 존재하지 않던 섬 상부의 정자터, 苑池 內 橋脚施設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양상은 이웃한 일본에서도 동시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7세기 후반~8세기 전반에 韓·中·日 宮苑池 조성에 새로운 변화의 動因이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宮苑池 조영의 思想的 背景은 神仙思想으로만 알려졌으나 形式分類를 실시한 결과, 神仙思想과 佛敎의 두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섬·가산·정원석이 사용된 宮苑池는 神仙思想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宮苑池에 관한 기록이 모두 神仙思想의 용어가 사용되는 점이나 한국 宮苑池에서 섬·가산·정원석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기재가 나타나고 있는 점, 그것이 제외된 宮苑池와 뚜렷히 구분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섬·가산·정원석이 제외된 方池系 宮苑池는 동시기 神仙思想이 반영된 曲池系 宮苑池와 형식상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점과 동시기 寺苑池와 형태·구조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佛敎와 연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遺蹟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古代 宮苑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計量化를 목표로 시도하는 分類, 分析을 행하는데 있어 遺蹟의 個數가 적어 論理의 飛躍이나 誤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앞으로 자료의 축적에 따라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 參 考 文 獻

### 단행본

- 김부식 著·이병도 譯, 2001,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 민경현, 1991, 『韓國庭苑文化-意匠 및 技法論』, 예경산업사.
- 李基白, 1986, 「望海亭과 臨海殿」,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 一然 著·金奉斗 編譯, 1993, 『三國遺事』, 敎文社.
- 정동오, 1986, 『한국의 정원-韓國園林研究-』, 민음사.
- 정재훈, 1992, 『韓國傳統의 苑』, 도서출판 조경사.
- 홍광표·이상윤·정운익, 2001, 『한국의 전통수경관』, 태림문화사.
- 金子裕之 編, 2002, 『古代庭園の思想-神仙世界への憧憬』, 角川選書 339.

### 보고서

- 경주사범대학 박물관, 1987, 『公山城 百濟推定王宮址 發掘調査報告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1. 11,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전시관부지내유적 지도위원회의 자료」.
- , 2002. 6, 「경주 구황동 원지유적 지도위원회의 자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 『宮南池』.
- , 2001, 『宮南池Ⅱ』.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대성산성의 고구려 유적』.
- 金正基, 1991, 「高句麗 定陵寺址 및 土城里寺址 발굴보고 개요와 고찰」, 『佛敎美術』 10.
- 문화재관리국, 1978, 『雁鳴池』.
- 문화재연구소 고적발굴조사단, 1990, 『月城核字 발굴조사보고서 I』.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慶州龍江洞苑池遺蹟』.
- 윤무병, 1985, 『扶餘官北里 百濟遺蹟發掘報告(I)』, 충남대학교박물관.
- 鄭良謨·姜友邦, 1974. 9, 「新築 慶州博物館 新羅時代遺構 第一次調査」, 박물관신문43號 (국립중앙박물관).

—————, 1975. 1, 「新築 慶州博物館 新羅時代遺構 第二次調査」, 박물관신문45號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 3』.

### 논문

고경희, 1993, 『新羅 月池 出土 在銘遺物에 대한 銘文 研究』,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김영모·진상철, 2002, 「신선사상에 영향받은 전통 조경문화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41.

彭一剛 著·김종대 譯, 『中國古代庭園林의 分析』, 문화재관리국.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I)』,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박경자, 2001, 『雁鴨池 造成計劃에 關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백지성·하진호, 2002, 「경주시 용강동 정원유적의 원지구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한  
국정원학회지』 41.

심봉근, 1999, 「韓國의 苑池」, 『第16回檀原考古學研究所公開講演會』.

심우경·강훈, 1988, 「韓國 古代寺刹이 있어서 影池의 象徴的 意味와 修景的 位置」, 『한  
국정원학회지』 2권 7호.

오승연, 2002, 『韓國 古代 宮苑池에 關한 研究』,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윤국병, 1982, 「高麗時代 庭苑用語에 關한 研究」, 『한국정원학회지』 1권 1호.

—————, 1985, 「高句麗 安鶴宮庭苑에 關한 研究」, 『한국정원학회지』 1권 4호.

이송, 1984, 「韓國古代庭苑과 日本古代庭園과의 比較研究」, 『한국정원학회지』 1권 3호.

장상렬, 1992, 「발해의 건축」, 『발해사연구논문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정재훈, 1975, 「新羅 宮苑池인 雁鴨池에 대하여」, 『한국정원학회지』 6호.

河上邦彦, 1996, 「東아시아의 都城과 苑池」, 『東北아시아의 古代都城』.

홍광균, 1994, 「佛國寺 蓮池에 關한 一考察」, 『한국정원학회지』 12권 2호.

高瀬要一, 1998, 「飛鳥時代, 奈良時代の庭園遺構」, 『日本造園學會誌』 vol.61.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98, 『發掘庭園資料』.

小野健吉 編, 2001, 『日本庭園用語辭典』.

河上邦彦, 1999, 「飛鳥の苑池」, 『發掘された飛鳥の苑池』, 第16回檀原考古學研究所公開講  
演會.



## A Study on aspect of development and the ideological backgrounds of a pond a place of Korea

Oh, Seung-Youn

Up to now, the studies for a pond of ancient palace of Korea are mainly achieved in a landscape architectural field. In fact, we can't grasp the general aspects but we are only heard about the fragmentary ruins and remains by the people who are in charge of an archaeological excavation. In this thesis, therefore, I attempt to grasp the relational categories of the ponds of an ancient palace of Korea, and find out the ideological backgrounds of the ponds of a palace construction through classify them excavated so far. The ancient ponds of Korea are divided to the class of square ponds(I) and curved ponds(II) according a shapes of planes. The class of square ponds(I) are subdivided to the form IA of the class of square ponds and form IB of the class of square ponds by whether it has an island, artificial hill and ornamental stone or not. And the class of the curved ponds(II) are divided to the form IIC that is only composed of curves in shore and the form IID that is composed of curves and straight lines. According the size, it is divided to a small size that is below the maximal diameter, 20m, and a large size that is more than 45m, after all, the ponds of the ancient palaces are divided to IAa, IAb, IBa, IICa, IICb, IIDa.

The square ponds and the curved ponds are co-exist from the initial stage when a pond of a place was found in our country and are succeeded or changed after Silla unified the three Kingdoms. In other words, we can infer a continuity from the earlier stage from the fact that there is a flat figure ground mainly constituted by the ponds of a palace mixed up of a straight line and a curved line in United Silla Kingdom while it succeeds the ponds of a palace that has a square form of



Goguryo in Balhai. Different from the successional relation of the flat figure grounds, in an aspect of the elements of the construction, the site of the arbor at the top of the island and the bridge facilities in a field of a palace those are not exist in three Kingdoms period are appeared in United Silla Kingdom. The point that this aspect is simultaneously appeared in a neighboring country, or Japan, allows us to infer that there may be some motivations cause the changes in a construction of the ponds of a palace of Korea, China and Japan from the latter half of the 7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8th century.

The ideological backgrounds of the ponds of a palace construction are divided roughly into Taoism and Buddhism. We can recognize that the ponds of a palace made up of the islands, the artificial hills and the garden rocks reflect Taoism, considering the records of the ponds a palace of Korea and China are all use the term, Taoism, or the concrete statement represents that the islands, the artificial hills and the garden rocks are used in the description of the ponds of a palace of Korea. Both two are, therefore, obviously differentiated from the ponds of a palace that doesn't include them.

We can conclude that the ponds of a palace that doesn't include them are colored by Buddhism since they are overtly distinguished from the class of curved ponds that reflect Taoism at the same period and they are identical with the site of an ancient temples in an aspect of their type and construction.

Keyword : ponds of a palace, formal classification, aspect of development, ideological background, Taoism